

# 세운지구에 초고층 빌딩 들어선다... '화이트사이트' 추진

〈허용된 용적률 내 토지의 용도 자유롭게 지정가능 제도〉

오세훈, 싱가포르 '마리나원' 방문  
땅 용도 구분하지 않고 자율성 부여  
'도심 복합개발 특례법' 제정 필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30일 오후(현지시간) 싱가포르의 마리나베이에 위치한 주거·관광·국제업무 복합개발단지인 마리나 원의 내부 녹지 상황을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중구 세운지구 일대에 용적률 제한을 푼 초고밀 복합개발단지 조성을 추진한다. 싱가포르가 구도심의 공간 효율을 극대화해 새로운 랜드마크로 만든 마리나원(Marina One)처럼 토지이용규제가 전혀 없는 '화이트사이트(White Site)'를 적용한 유연한 개발로 낙후된 서울 도심을 복합 개발한다는 의도이다.

세계도시정상회의(WCS) 참석차 싱가포르를 방문 중인 오 시장은 지난 30일 마리나원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히면서 '도심 복합개발 특례법' 제정을 정부에 촉구했다.

'마리나 원'은 세계적인 관광명소인 마리나베이에 위치한 주거·관광·국제업무 복합개발단지다. 싱가포르를 계획 단계부터 용도지역을 특정하지 않고 창

의적이면서도 유연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전히 풀어주는 '화이트사이트'를 적용해 복합개발을 전폭 지원했다. 용적률 1,300%(지하 4층~지상

34층)의 초고밀 복합개발과 마리나베이의 풍광과 잘 어울리는 유선형의 수려한 건축 디자인이 가능했다.

서울시가 구상하고 있는 '도심 복합

개발'의 핵심은 지금처럼 주거, 상업, 공원 등으로 땅의 용도를 구분하지 않고, 어떤 용도를 넣을지를 자유롭게 정하도록 해 유연한 개발을 유도하는 것이다. 예컨대, 한 건물에 운동장 없는 학교와 초고층 수직정원 등이 동시에 들어가고, 건물 안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출퇴근하는 생활이 가능해진다.

특히, 신규 주택을 건설할 토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서울 도시에 '직주혼합' 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시 외곽에서 출퇴근할 때 발생하는 교통문제와 환경오염을 줄이고, 야간·주말이면 텅 비는 도시가 아닌 24시간 활력이 끊이지 않는 도시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과도한 규제와 보존 위주 정책으로 성장이 정체된 구도심의 도심 기능을 끌어올려 서울의 글로벌 도시경쟁력을 견인할 거점으로 탈바꿈시킨다는 목표를 가지고 추진 중에 있다.

서울관 화이트사이트를 도입하려면 국토계획법을 뛰어넘는 '도심 복합개발 특례법' 제정이 필요하다. 서울시는 특

례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한편, 특례법에 서울 도심의 특수성이 충분히 담긴 세부적인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지난달 '구도심 복합개발 TF'도 구성해 운영에 들어갔다.

TF에서는 도심 개발범위부터 특례법 제정의 필요성, 사업방식, 공공성 확보 방안 연구 등 제도를 전반적으로 들여다보고, 도심 내에서 복합개발 사업에 적합한 후보지도 검토할 예정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도심 복합개발은 직주근접 주택공급으로 출퇴근에서 발생하는 교통혼잡, 환경오염을 줄일 뿐 아니라 도시철도망 건설에 투입되는 천문학적 예산, 베드타운 양산 등 우리 모두가 부담해야 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인다는 측면에서 단순한 지역개발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중앙정부와 협력해 서울의 경쟁력 확보와 균형 발전, 각종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도심 복합개발을 실효성 있게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하는 기자 godhe@metroseoul.co.kr〉

## 3대가 한동네 사는 '세대공존형 주택' 만든다 '서울 담은 NFT 창작물' 메타버스서 전시

오세훈표 고품질 임대주택 공급계획  
일상고층·사회문제 완충 역할 대안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싱가포르 방문 첫 번째 일정으로 캄퐁 애드미럴티, 풍골 에코타운 등 싱가포르의 대표적인 공공주택 단지를 찾아 세대공존형, 도심형, 에너지 절감형 등 시가 구상 중인 다양한 유형의 '오세훈표 고품질 임대주택'에 대한 공급 계획을 밝혔다. 싱가포르 인구의 약 82%가 살고 있는 싱가포르의 공공주택은 수요자 만족과 주거 안정을 동시에 이루는 모범적인 모델로 꼽힌다.

오 시장은 싱가포르 북부의 실버타운인 '캄퐁 애드미럴티'를 방문한 자리에서는 은평구 서울혁신파크에 세대공존형 공공주택 '골드블리지'를 짓겠다

고 밝혔다. '캄퐁 애드미럴티'는 아이를 키우는 부부가 많이 사는 10여 개 공공주택단지 한 가운데에 조성됐다. 노년층 부모와 결혼한 자녀, 어린 손자·손녀 등 3세대가 근거리에서 거주하는 세대 통합 주거단지를 형성하고 있다.

서울시도 급속한 고령화, 돌봄 공백 등 사회문제의 대안으로 부모, 자녀, 손자·녀 3대가 한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세대공존형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시가 구상 중인 세대공존형 주택의 유형은 ▲캄퐁 애드미럴티와 유사한 노인복지주택 '골드블리지' ▲부모-자녀-손자녀가 한 지붕 두 가족처럼 거주하는 '3대 거주형 주택' 등 두 가지다.

시는 은평 혁신파크 내 일부 건물을 허물고 공공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신하는 기자〉

임대 및 분양 방식은 토지임대부 주택과 더불어 공공임대 방식을 여러가지 형태로 포함하겠다는 방침이다.

오 시장은 "은평 혁신파크 부지는 꽤 넓은 편이다. 그리고 굉장히 복합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부지다. 그 공간을 통해서 실험을 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어르신을 잘 모시면서, 자녀들도 결혼한 후 출산한 자녀들을 키울 때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효용성이 높은 세대통합형 주거단지를 실험해보려고 한다"며 "만약 좋은 평가를 받게 되면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를 통해서 앞으로 재건축하게 되는 임대단지에도 이런 개념을 집어넣을 수 있도록 선도적인 모델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신하는 기자〉

서울디지털재단 작품 구매도 가능

서울디지털재단은 메타버스 가상세계에서 8월 1일부터 '디지털서울 NFT 공모전' 수상작을 전시한다. 메타버스 가상갤러리는 시민 누구나 URL 주소를 통해 관람할 수 있으며, 작품 설명을 클릭하면 NFT 작품도 직접 구매할 수 있다.

가상갤러리는 총 2개 층으로 구성돼 있으며, 1층에서는 공모전 수상작 상세 관람이 가능하고, 2층에서는 NFT 발행 교육 영상과 서울디지털재단 홍보 영상 시청이 가능하다.

수상작은 지난 6월 '디지털서울 NFT 공모전'에 제출한 시민들의 작품으로, 서울시 상징물과 랜드마크를 이미



(왼쪽부터) Klay Ape Club팀, 강은채 작가, 강요식 이사장, 안태영 작가, 최명옥 작가가 '디지털서울 NFT 공모전' 수상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울시

지, 영상 등 디지털 창작물(NFT작품)로 다채롭게 표현한 총 17개 팀이 선정됐다. 대상, 우수상, 장려상 모두에게 NFT 발행 지원금 10만원이 수여됐다.

〈신하는 기자〉

## 교육부 초등교원 생존수영교육 전문가 양성

해양경찰교육원서 직무연수

교육부와 해양경찰교육원은 초등교원을 생존수영교육 전문가로 양성하여 교원 중심의 생존수영교육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22년 중앙단위 초등교원 생존수영 직무연수(이하 '생존수영 연수')를 8월 1일부터 26일까지 해양경찰교육원(전남 여수)에서 실시한다.

초등 생존수영교육은 다양한 수중 환경(강, 바다, 냇가, 수영장 등)에서 학생이 스스로 자기생명을 보호하는 생존수영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2014년부터 교육대상을 연차적으로 확대해 왔다.

2020년부터는 초등 전 학년을 대상으로 생존수영교육이 실시됨에 따라 교원의 생존수영 전문실기 역량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어,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해양경찰교육원과 함께 연수를 기획해 추진했다.

이번 연수는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2019년 이후 3년 만에 재개되는 중앙단위 연수로서 시도교육청에서 추천한 280여 명의 초등교원 대상으로 2박 3일간, 7기수로 나눠 운영된다.

올해 연수는 해양경찰청(해양경찰교육원), 학교체육진흥회가 공동 주관·운영하며 해양경찰교육원의 우수 인력과 전문 교육시설을 활용해 연수 내용의 현장성과 전문성을 강화했다.

〈신하는 기자〉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5:36 | 해질 / 19:41

8월 1일 (월)  
음력 : 7월 4일

수도권 날씨  
25 ~ 32°C

운동 지수: [Progress bar]

빨래 지수: [Progress bar]

세차 지수: [Progress bar]

외출 지수: [Progress bar]

지역별 날씨: 연천 25/32, 동두천 24/31, 가평 24/31, 파주 24/31, 서울 25/32, 양평 25/31, 용인 25/32, 수원 25/32, 인천 26/31, 평택 25/32, 백령도 23/28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中, 펠로시 하원의원 대만 방문설에 '경고'...미중 시험대  
▲바이든, 코로나19 재확진...주치의 "증상은 없어" /사진 뉴시스



▲'1조7000억' 복권 당첨자 나왔다...美 역대 3번째 큰 금액  
▲뉴욕시 '원숭이두창 비상사태' 선포 /사진 뉴시스

▲美 서부 산불, 주말 강풍과 폭염으로 여러 주로 확산  
▲러시아, 이웃국가 라트비아에 천연가스 공급 중단